

청소년 노리는 도박…탈출 패스워드는 ‘1336’

(상담 전화번호)

불법도박은 ‘사회 악’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검은 손이 뻗어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각계각층이 불법도박을 쉽게 접하게 된 탓이다.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유해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를 점검·진단했던 스포츠동아는 이번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 관련부처, 유관단체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지난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드림콘서트’에서 도박문제 예방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최근 예방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독 예방·치유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국 학교 방문 교육…경각심 제고**

**도박문제 상담 통해 인지 치료 진행
중독자 대상 치유·재활 사업 지원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이하 센터)는 2012년 11월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2013년 8월28일 개원했다.

사감위 법(제14조 1항)에 따르면, 센터는 ▲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과 교육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설립했다.

센터는 그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연구·인력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전국 14개 센터에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정순제 홍보사업팀장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아직 도박을 접하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박

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예방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도박 예방 활동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욕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릴 경우의 결과를 확인하게 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게임과 도박의 차이’ 등 도박 문

제 예방법을 교육한다. 학부모와 군장병, 유관기관 및 사행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다. 정 팀장은 “예방 강사들이 전국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매년 9월17일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로 제정해 해당 주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치유 과정도 중요하다. 이미 도박의 늪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 치료를 진행한다. 여러 분석을 통해 도박 문제의 수준과 욕구에 따라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희망안내서와 매뉴얼, 인지행동 치유프로그램, 재정·법률 안내서와 사례집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정 팀장은 “상담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뒤에도 회복 및 유지, 재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 팀장은 “도박은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도박에 노출된 사람들은 물론 가족 등과 함께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난타’와 같은 문화 활동과 자연 친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박이 아닌 문화생활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FA자격을 얻어 원주 DB로 이적한 김종규는 이전 6시즌을 동행한 LG와 창원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포츠동아DB

**“창원 팬들 못 잊을 거예요”
‘DB행’ 김종규의 작별인사**

올해 남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힌 김종규(28·원주 DB)는 출범 이래 최고 보수인 12억7900만 원에 원주 DB로 이적했다. 김종규는 2019~2020시즌부터는 DB의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프로농구 무대를 누빌 예정이다.

김종규는 최고 대우를 받으며 DB로 이적했지만, 마냥 흥분한 기분은 아니다. 원 소속구단이었던 창원 LG에 대한 마음 때문이다. 2013년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LG에 지명을 받은 김종규는 ‘창원 아이돌’라는 별칭을 얻는 등 프랜차이즈 스타로 6시즌을 뛰었다.

김종규는 20일 DB 이적이 확정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DB 이적이 확정되고 ‘내가 진짜 LG를 떠나는구나’라고 실감했다. LG는 나를 1순위로 뽑아준 팀이다. 재계약 협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이다”고 고마움을 먼저 표실했다.

LG의 연고지 창원은 프로농구 10개 구단 중 전주(KCC), 원주(DB) 등과 함께 팬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곳으로 손꼽힌다. LG의 팬들 사이에서 김종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창원 팬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늘 뜨거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부심도 가졌고, 신나게 뛰었다. 특히 이번(2018~2019시즌) PO 패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첫 사랑은 잊지 못한다고 하지 않나. LG팬들은 첫 사랑의 기억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내 결정(이적)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DB에서도 팬들의 기대에 걸맞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양궁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임시 양궁장에서 열린 특별 평가전에서 활을 쓰고 있다.

남정현 기자

도심 속 양궁장…태극궁사들 ‘바람을 제압하라’

세계양궁선수권 대비 특별 평가전
임시 경기장 ‘악조건’ 훈련도 견해

현장 리포트

세계 최강의 실력을 지켜온 대한민국 남녀 궁사들이 2019년도 특별 평가전을 치른 2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활시위를 당기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다. 미세먼지가 사라진 자리를 파란 하늘이 채웠으나 강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었다. 태극궁사들은 내내 애를 먹었다.

정확한 조준 이상으로 풍향을 계산한 리듬과 감각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양궁에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2일까지 이들 간 진행될 이번 대회는 다음달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열릴 2019 세계양궁선수권(6월 9~16일)을 대비한 무대였다. 하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 국제대회를 앞둔 무렵이면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궁사들의 사전

적응을 위해 최대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체 평가전을 개최했다. 소음 적응을 위해 야구장에서도 자주 활을 쏘다.

2020도쿄올림픽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4000만 원 이상을 들여 설치한 임시 양궁장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경기를 지켜보도록 완전히 오픈 된 공간에서 대회를 진행한다는 점. TV 화면으로 접한 양궁 선수들이 신기한 듯 몰려온 일반인들과 봄나들이를

나온 유치원 꼬마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더해져 다소 소란스러웠다.

그래도 선수들은 묵묵히 사대에 올랐다. 바람과 소음은 아주 흔하다. 세계선수권과 내년 올림픽 모두 바람이 센 임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등 악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양궁협회 감기찬 부회장은 “꼭 필요한 시뮬레이션이다. 실력 이외 변수를 극복하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굴착기·고량주·한우…골프 이색 부상의 모든 것

**매치권 김지현 “굴착기 어디에 두죠?”
살아있는 한우, 대상자 없자 컴백**

19일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벌어졌던 2019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김지현(28·한화큐셀)이 우승을 했다. 결승전 상대 김현수(27·롯데)를 일방적으로 앞선 끝에 4홀을 남기고 6타 차의 대승을 거뒀다. 406일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5승째를 달성한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다. 상금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꺾중 뛰었다. 우승상금은 무려 1억7500만원이었다. 대상포인트도 33점(31위)에서 우승 포인트 50점을 추가해 83점(14위)이 됐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부상으로 받은 굴

착기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시가 2450만원의 제품이다. 굴착기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부상이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대회를 후원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굴착기를 우승자에게 선물로 줬다.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처음 받았다. 고급 승용차도 아닌 굴착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호사가들은 궁금해 했다.

박인비는 아버지에게 선물했다. “아버지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김지현은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1번 시드의 박인비를 누르고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김지현은 아직 굴착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싶은 하다”고 말했지만 일단 받으면 어디에 세워둘지, 어떤 용도로 쓸지 여러 고민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으로 굴착기를 부상으로 받은 김지현. 사진제공 | KLPGA

을 해야 한다. 굴착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따로 면허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박인비는 취재진을 위해 굴착기를 타고 운전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비가 내려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우승응은 아니지만 이전의 몇몇 골퍼대회는 이색적인 부상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2009년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

폰에서 12번 홀의 홀인원 선물로 금문고량주가 나왔다. 당시 중국골프협회는 홀인원 선수에게 몸무게만큼의 금문고량주를 준다고 했다. 임지나가 홀인원을 기록했고 프로 필에 나온 몸무게만큼의 고량주를 받았다. 당시 시가로 1000만원이 넘었다. ‘술은 배에 넣고 올 수는 있지만 지고 오지는 못한다’는 말처럼 금문고량주를 100병 이상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임지나는 주위에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2010년 KLPGA 투어 불박·라이언스코트 여자오픈에서는 살아 있는 한우 한 마리가 부상으로 걸린 적도 있었다. 강원도 횡성 청우GO에서 열린 대회였다. 홀인원 상품으로 횡성 축협이 지역의 특산물 한우를 내걸었다. 티 박스 옆에 마련된 임시 외양간에서 한우가 자신을 데려갈 주인공을 기다렸지만 누구도 홀인원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 한우는 횡성의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